

### 포천문화예술의 1번지 포천예술인동우회

#### 제19회 정기회원작품전 포천반월아트홀에서

포천예술인동우회(회장 이병찬)는 12월4일 오후4시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실에서 제19회 정기회원작품전 개막식을 갖고 12월8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은 서장원 포천시장과 이만구 문화원장, 이종희 포천문인협회 회장과 포천예술인동우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영진 포천예술인동우회 부회장이 이병찬 회장을 대신해 함께 해 주신 회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찾아주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올린다"고 밝혔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제19회 포천예술인동우회 정기회원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16만 포천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예술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나누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예, 서각, 시화, 미술, 공예부분 등에 참가한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예에 ▶이병찬 ▶김철형 ▶이



포천예술인동우회는 12월4일 오후4시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실에서 제19회 정기회원작품전 개막식을 갖고 12월8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했다.

- 정준 ▶최영진 ▶양영욱 ▶이순휘 ▶홍성민 ▶서각 ▶손상용 ▶시화 ▶손진홍 ▶이석구 ▶황형일 ▶이중훈 ▶이원용 ▶박경옥 ▶강돈희 ▶김성진 ▶김순진 ▶김경자 ▶이혜숙 ▶정영욱 ▶김부균 ▶이찬민
- 장 황 ▶미술 ▶황형일 ▶이자희 ▶홍명진 ▶김계영 ▶강미자 ▶김연숙 ▶이명숙 ▶김옥분 ▶김영자 ▶양재득 ▶공예 ▶이혜숙 ▶성 선 ▶김경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韓國의 선비정신 · 122

#### 관찰사를 훈계한 뒤 군수 자리를 버리고 떠난 조언형

조언형(曹彦亨, 1469~1526)의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자는 형지(亨之)이다. 연산군 10년(1504)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 낭관을 역임하였다. 조언형의 성품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착한 것을 좋아하여 적당히 살아가는 세상사람들과 더불어 행동을 같이할 수 없어 이조 낭관을 거쳐 집의에 이르러 여러 번 좌절하였다가 다시 일어났다.



리효중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강훈(姜暉)과는 어려서부터 가까운 사이였는데, 자라서도 우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강훈이 연산군 때에 연산군에게 바른 소리를 못하고 그의 총애를 받아 도승지가 되는 것을 보고는 분하게 여기며 미워하기를 마지않았다.

중종반정 초기에 단천군수(端川郡守)로 있었는데, 강훈이 당시 합경도 관찰사로서 단천고를 예순시러 온다는 말을 듣고, 조언형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행장을 꾸리게 하고 집안 사람에게 말하여 탁주 한 통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관찰사가 곧 오실 터인데 나가서 정중히 맞이하는 것이 예

외에 걸맞습니다."

아전이 와서 아뢰었으나 조언형은 병을 핑계 대며 나가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조언형이 감색(紺色)의 직령(直領)에다 분투(分套)를 끌고 종 하나를 시켜 술통을 메게 하고, 바로 상방(上房)으로 나아갔다.

"혼지(渾之: 강훈의 자) 어디 있는가?"

강훈이 그 목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나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였다.

"나 여기 있네."

"날씨가 차가운데 자네 한잔 마시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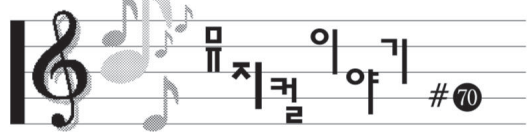
조언형이 자리에 앉아 안부도

묻기 전에 먼저, 스스로 큰잔을 들어 마시는데 안주가 없었다. 강훈 역시 제 손으로 술을 부어 마셨다. 세 순배가 지났을 때에 조언형이 말문을 열었다.

"지난날 자네가 한 짓은 개나 돼지만도 못하니 자네가 남긴 것을 누가 먹겠나. 자네가 젊었을 적에는 총명하고 민첩하여 사귀었다고 여겼는데 어찌 조그마한 재주를 가지고 보잘것없이 처신하기가 이렇게 극도에 이른단 말인가. 살아 있는 것이 죽는 것만 못했기에 내가 편지를 보내어 절교하려 하다가 한번 만나 나우려려고 하던 터였는데, 이제 이미 서로 만나 보았으니 나는 내일 당장 떠날 것이네."

다시 한잔 더 마시자고 하며 또 석 잔을 잇달아 주니 강훈은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이튿날 조언형이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떠났다. 뒤에 벼슬이 판교(判校)에 이르렀다.

그의 아들이 바로 남명(南冥) 조식(曹植)이다. 조식의 의기가 격양하는 기풍은 대체로 물려받은 데가 있다고들 하였다.



### 42년간 최장기 통런 뮤지컬 판타스틱스 (The Fantasticks, 1960)

단일 공연으로 한 극장에서 42년 동안 끊임없이 공연되어왔다면 삼대에 걸쳐 관람했을 공연이다. 1960년 젊은 시절 할머니가 본 뮤지컬을 1980년대에 딸을 데리고 다시 보러갔고 그 딸이 2000년에 다시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같은 극장에서 함께 관람했을 것이다.

〈판타스틱스(The Fantasticks)〉는 1960년에 초연한 이후 끊임없이 공연되었으며 2002년 막이 내릴 때 까지 17162회라는 단일극장에서 공연한 최장기 뮤지컬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이 기록은 전 세계의 모든 공연을 통틀어서 두 번째의 기록이다. 전체 공연 장수를 포함한 세계 최장기 공연 기록은 1952년 초연이후 2008년 현재까지 57년간 연속공연을 기록하고 있는 영국 작품 〈쥐덫(The Mousetrap)〉이다.

〈판타스틱스〉는 주인공인 어린 매트와 루이지의 성장과정을 다룬 뮤지컬로 매트와 루이지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사랑을 맺어 주는 이야기이다. 막이 오르면 극중 나레이터인 해설자가 유명한 주제곡 '트라이 투 리멤버(Try to Remember)'를 부르고 매트와 루이지,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들을 소개한다.

두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에 빠지는데 이들을 결혼시키고자 두 아버지는 서로 나쁜 사이임을 자처한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수 집안처럼 아이들의 사랑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든다. 마당에 울타리를 만들어 일부분 두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고 이에 대한 반발 심리로 매트와 루이지는 몰래 담장을 넘 나뉘며 사랑을 나눈다. 두 사람의 아버지들은 매트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악당들을 동원해서 루이지를 위협에 처하게 한다. 악당이 루이지를 겁탈하

려는 순간, 매트가 나타나서 싸움을 벌이는데 일부러 저주는 악당들을 물리치고 루이지의 사랑을 얻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집안의 아버지들은 공식적으로 화해할 구실을 얻는다. 마당의 울타리도 허물어지지만 이들의 계획이 탄로가 나고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환상도 깨지며 급기야 매트는 루이지와 다투고 도시로 떠나 버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도시로 떠나보낸 루이지는 가슴앓이를 하고 매트 또한 도시에서 생활을 하며 시간이 흐른다. 시련과 방향을 지친 매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를 기다리던 루이지와 행복한 재회를 하게 된다. 결국 사랑의 재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대를 초월해서 40년 이상 통런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순수한 젊은이들의 사랑과 열정을 단순한 플롯으로 스케치한 것이 주요했기 때문이었다. 뮤지컬은 일터가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인데 〈판타스틱스〉는 단순한 사랑이야기에다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내용을 첨가해서 여러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가족 뮤지컬로 만들어졌다. 가장 유명한 노래인 '트라이 투 리멤버(Try To Remember)'는 '곧 비가 올거야(Soon It's Gonna Rain)'와 함께 미국 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을 정도로 수십 년 넘게 사랑받으며 사랑받은 노래다. 그동안 여러 유명한 가수들과 관현악대에 의해 수많은 편곡 및 리바이벌 되었었는데 나나 무스쿠리(nana mouskouri), 여명(영화) 〈유리의 성〉 주제곡 등이 리바이벌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성시경이 불러 히트했다.

뮤지컬 〈판타스틱스〉는 할리우드와 브로드웨이 그리고 세계 각

국의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들이 무명시절 거쳐 간 무대였다. 뮤지컬 영화 〈카미레〉의 스타 라이자 미넬리(Liza Minnelli), 할리우드의 대표적 연기파 배우인 글렌 클로즈(Glenn Close), 〈가시나무 새〉에서 사랑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한 신부역으로 전 세계의 시청자들을 가슴 설레게 했던 리처드 챔버레인(Richard Chamberlain), 〈아브라함〉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에이브러햄(F. Murray Abraham)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가라성 같은 수많은 스타들이 프로그램을 장식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판타스틱스〉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고 브로드웨이나 할리우드로 진출했으며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 이유로는 뮤지컬 〈판타스틱스〉가 배우에게 단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연기력도 요구하는 뮤지컬이었기에 다재다능한 배우로서의 능력을 지녀야 공연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작품으로 작인 사랑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어 배우와 관객 모두에게 인기가 많으며 매년 무대에 올러 지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다. 한 번쯤 전문적인 무대이든 학생들의 무대이든 관람해 보길 바라며 꼭 추천하고 싶은 행복한 뮤지컬이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뮤지컬 〈판타스틱스〉는 할리우드와 브로드웨이 그리고 세계 각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55)

#### ‘백매헌(百梅軒)’의 정구(鄭球)

과거, 고려 말, 고려 유신들 72인이 개성 인근 두문동에서 은거하여 조선조개국을 무언 저항한 일은 역사에 기록되어 독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본란을 통하여 유공부 장군의 충목단에 함께 제향 되고 있는 양치(楊治)선생의 이야기(두문동에 은거)도 본란을 통하여 소개된바 있으나 은거가 아니라 중종14년(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등 참칭하고 개혁성 있는 신진사류들이 참화를 당하자 벼슬길에서 멀어지고 내 고향 포천 '두문동'에서 18년간 은거하였던 분이 바로 정구(鄭球)님이다.

“두문동(杜門洞)”은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마을이다. 남은 성품이 강직하고 진실하며 사치를 싫어하였으며 열리(榮利)를 좇지 않았다. 그러가 하면 요인들 과도 교류도 하지 않은 채 두문동에서 철저한 은둔 생활을 하며 '두문불출(杜門不出)'하였던 인물이다. 일찍이 한원(翰院)에서 사필

(史筆:역사를 기록)을 기록할 때에도 사실대로만 기록하고 불의(不義)와 불법(不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선비정신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강직한 성품은 강한 반발에 부딪쳐 권모술수(權謀術數)가 난무하던 당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리 없었다. 그래서 많은 간신들에게 미움을 샀다고 한다.

조선 중종조 사람으로 생년은 미상이고 신북면 기지리에 두문동에서 18년간 은거하였던 두문동에 묘가 있다.

자(字)는 '대명(大鳴)' 호는 '괴은(龜隱)' 본관은 동태, 무안현감 '유(務安縣監 有義)'의 아들이며 '남명(南冥 曹植)'의 문인이다.

남은 '자'나 '호'를 보아도 남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 수 있으며 부친의 이름에서도 곧고 바른 성품을 잘 알 수 있어 가슴에 와 닿는 바가 있다.

연산군7년(1501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중종5년(1510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承文院)에 들어갔으며 그후에 문관 겸림과 시간림 정언(正言)등을 거쳐 단천군수를 지냈다. 그 후 첨정과 부정(副正)을 지냈다.

“한원(翰院)이 모인 곳은 곧고 바른 선비들이 모여 임궫케 바른 말을 고하는 열리트들의 관직과 관정을 말한다. 이 곳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도 있으며 높은 벼슬아치들과 어깨를 나란히 영의정까지 오를 수도 있는 관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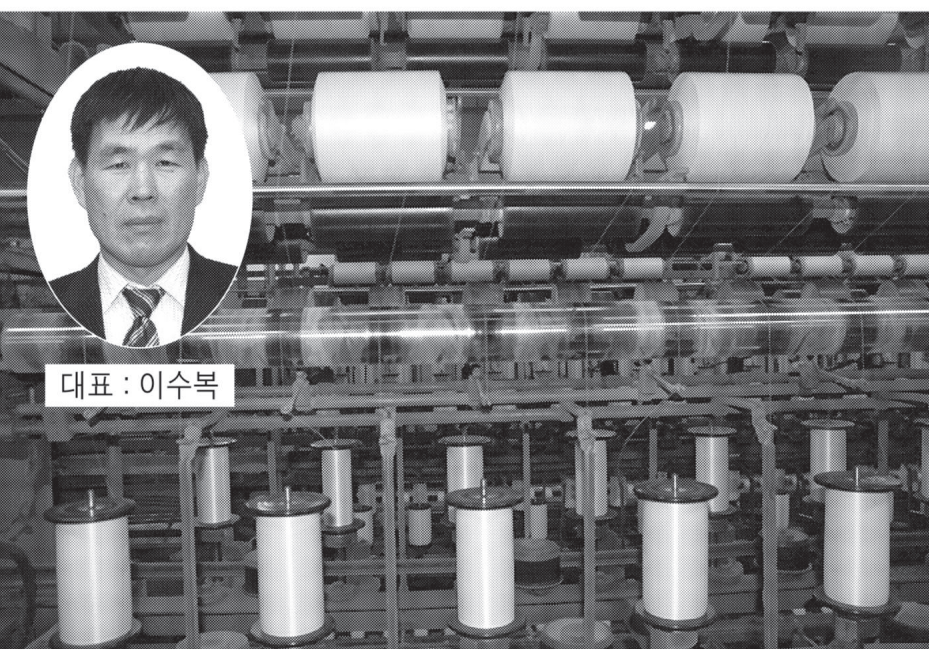
그러나 정구(鄭球)님은 임금 중종의 두터운 신임과 총애를 받던 선비 중의 선비 조광조(동방18현으로 함교에 모셔 제향되는 현인)같은 선비가 참화를 당함에 벼슬길에 큰 회의를 느끼고 두문동에 은거하며 싶었다. 사랑 앞 100그루의 매화를 심은 '백매헌(百梅軒)'은 남의 정신을 대변하고 있다. (저서: 괴은집)

포천신문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스판덱스 카바링사의 선두주자

## 수성섬유

수성섬유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 : 이수복



## 주요생산품목 스판덱스 카바링사

위 치 :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1146-9번지  
전화번호 : 031-544-6455  
팩스번호 : 031-544-6456  
대 표 : 이수복